

“북고성 봉수리 출신 어르신들을 찾습니다”

백순 앞둔 어머니 위해 경로잔치 준비 ... “4~5명이라도 연락 닿으면 모시고 싶어요”

죽왕면 제일고물상 김응구씨의 ‘사모곡’

“북고성군 고성을 봉수리 출신 어르신들을 찾습니다.”

죽왕면에서 제일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김응구씨(67세, 사진)의 남다른 사모곡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김씨는 지난 13일 본지에 전화를 걸어 “백순을 앞둔 어머니(박경여, 99세)를 위해, 어머니와 고향이 같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해드리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김씨의 어머니 박경여씨는 북고성군 고성을 봉수리 출신으로, 6.25 전쟁이 나기 전 간성을 광산4리로 시집와 현재까지 살고 있다. 광산 출신인 김씨는 어머니로부터 봉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으며, 현재 고성군에 20~30명 가량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씨는 “어머니께서 셋째 동생

이 6.25 때 광산으로 놀러왔는데, 잡아두지 못하고 봉수리로 그냥 보낸 것이 지금도 마음에 걸리신다고 한다”며 “전쟁 중에 봉수리에 살던 어머니 형제분들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지만, 셋째 동생은 북한에 남아 소식을 모르다”고 했다.

김씨는 요즘도 가끔 봉수리 이야기를 하는 어머니를 위해 고향 어르신들을 만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중 고성신문에 알리면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전화를 걸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우선 4~5명이라도 연락이 닿으면 그 분들이라도 모시고 큰 절을 올리고, 진수성찬을 마련해 식사대접을 하고 싶다고 했다. 또 이를 계기로 어머니 고향분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의지하고 지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씨는 “저는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불효자”라며 “최근에는 금강산 여행이라도 시켜드리려고 했으나, 중단되는 바람에 그러지 못해 마음에 짐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 10년전부터 현재의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그동안 남모르게 독거 노인들을 돕는 등 많은 선행을 펼쳐왔으나, “고물쟁이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남을 돕느냐”는 말을 들을까봐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저에 대한 소개는 하지 말고, 그저 어머니 고향분들이나 연락이 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김응구씨 연락처 011-377-4408〉

최광호 기자



고성중고총동문회 장학재단 출범

초대 윤승근 이사장 ... “선배들의 정성과 염원의 결실”

모금액 2억원

고성중고총동문회는 지난 15일 오후 4시 고성중고 체육관에서 동문회원 및 재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동문회 장학재단 창립식을 개최했다.

고성중고총동문회 장학재단(이사장 윤승근, 고성신문 발행인)은 학비가 없어 학업을 포기하는 동문을 줄이고, 면학분위기를 쇄신해 인재를 확충하자는 취지에서 창립하게 됐다.

윤승근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출범하는 장학재단은 선배들이 오랜 세월 모금활동을 통해 이뤄낸 뜻과 정성이 모아진 염원의 결실”이라며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므로, 동문 여러분께서 모두 참여해 기금확보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고성중고총동문회 장학재단 모금액



지난 15일 열린 고성중고총동문회 장학재단 창립 기념식에서 윤승근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은 2억여원이며, 매년 입학식날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창수 고성중고총동문회 사무총장은 “모교 출신들의 뜻과 정성으로 이뤄진 장학재단이 모교 후배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장학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고성 82정우회 봉사활동 앞장

82년생 친구로 구성된 봉사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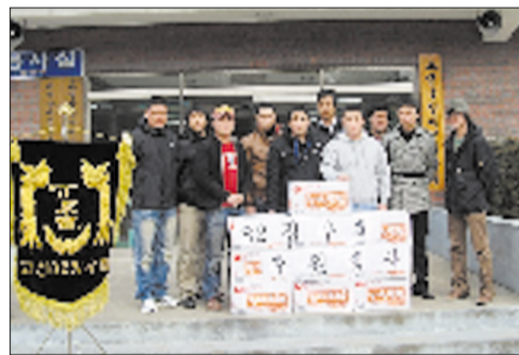
“작은 정성이 저희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성출신 82년생들의 모임인 고성82정우회(회장 김윤식)는 어두운 그늘속의 소외된 계층인 장애인 및 독거 노인들에게 무료 지원 봉사활동을 펼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고성82정우회는 처음엔 친구들과 계모임으로 시작했는데 회원 모두가 좋은 일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계기가 돼 나눔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매년 1~2회 거진 소재 소망요양원과 고성군지체장애인협회를 찾아 음식을 전달하고 있다. 2007년 16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무료봉사활동이 벌써 4년째이다. 처음엔 회원 모두가 다양한 봉사활동을 폭넓게 해 보자고 했는데 직장 생활의 어려움에 부딪쳐 무료로 물품을 전달키로 했다.

매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회비를



고성82정우회가 지난해 지체장애인협회에 라면을 전달하는 모습.

아껴서 복지기관을 선정해 무료 물품 전달 봉사활동을 한다.

소망요양원에는 빵과 우유, 간식거리를 제공하고 고성군지체장애인협회에는 라면과 쌀을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고성82정우회 관계자는 “더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며 “향후에는 가족과 함께 지역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승근 기자